

“5극 2특 체제? 전북 독자권역화 외면 처사”

국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위상 확보 협력” 촉구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는 지난 4일 전북을 방문한 김병준 대통령령직인수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조 후보는 최근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5극 3특 체제를 5극 2특 체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는 전북이 염원해온 전북 독자권역화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전북도가 새만금과 더불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는 5극 3특 체제 대신, 5극 2특 체제가 채택될 경우, 전북이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또 다



전북에 소재한 기관은 9개로, 대부분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아울러, 건의서를 통해 “전북이 기존의 소외와 차별을 넘어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념인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길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전북 홀로서기에 대한 전북 도민의 바람을 잘 알고 있으며, 전북 도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것으로, 5극은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의 메가시티이며, 3특은 전북·새만금,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지칭한다

유호상 기자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고민정·신현영 의원 등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역 현안 꼼꼼히... 해결 위한 예산 확보 최선”

민주 윤준병 의원, 행안부 특교세 정음 10억·고창 11억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정음 10억, 고창 11억 등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정읍시의 경우 ▲정읍시 활용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 ▲신외면 정량리 배수로 설치공사 4억 등 총 1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정읍시 활용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해 정



읍의 문화유산인 현존 최고(最古) 백제기요 ‘정읍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감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정읍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차별화된 야경 및 디지털미디어를 연출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전망이다

고창군의 경우는 ▲장사정 공방 신축사업 2억, ▲주진천 원평가뚝보 현대화사업 9억 등 총 11억원을 확보했다.

‘장사정 공방 신축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해 그간 공방시설이 없어 전국대회 및 도대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사정에 공방을 신축 전국 대회와 도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정읍·고창 관계자와 함께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온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주민 삶의 질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민주 이원택 의원, 행안부 특교세 김제 12억·부안 11억 확보

행안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이 김제시(12억원)·부안군(11억원)에 최종 지원이 확정돼 김제·부안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4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 9억, ▲김제 순동산업단지 스노우텔링 시스템 설치사업 3억, ▲부안 돌파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7억, ▲부안 청우 생활 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등 총 23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교세 지원이 확정된 김제 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은 이르면 내년말까지 봉사단체 공유공간 및 회의실·다목적실 등을 갖춘 자원봉사센터를 건립, 약 2만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봉사활동 지원에



위한 허브 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제 순동산업단지 스노우텔링 시스템 설치사업은 이번 특교세 지원으로 올레

공사가 마무리되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전 및 근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 돌파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내년초 사업이 마무리되면 불법 주정차 차양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문제 및 주차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탄소소재,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탄소진흥원, JEC World 2022서 카본라이프홀 선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은 수소·전기차,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의 핵심인 탄소소재가 우리 일상 속 제품들에 적용 가능 소재로 구현되는 모습을 세계 최대 복합 박람회인 JEC World 2022에서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국내 산업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탄소소재를 재해석하고, 고기능성 탄소소재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카본라이프홀은 ‘Carbon with people’, ‘Carbon with Art’를 컨셉으로, 카본 퍼니저 전문가팀 ‘박스’가 탄소소재를 유연하면서도 세련된 텍스처를 기반으로 한 모던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보행자용 보조 보행장치를 선보인다.

또한, 탄소발열제품 전문 기업인 피치케이블은 탄소발열 산발판과 옷감을 전시해 탄소소재의 발열 및 원적외선 발생 기능으로 의류 및 신발의 습기와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사계절 내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재)전주문화재단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최초로 시도한 ‘탄소 예술 기획 전’에서 ‘Portraits of us’라는 작품으로 함께 했던 장영에 작가가 아트 디렉터로서 전시 총괄을 맡았으며, 장영에 작가의 작품 24점이 함께 전시돼 탄소소재가 예술과 삶 속에

서 다양한 플라보레이션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다.

장영에 작가는 “전시부스 디자인을 기획하면서 ‘한국 탄소산업의 즐거운 혁신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했다’며 “이번 전시 기획으로 한국의 탄소 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탄소소재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소재이고, 일상 속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소재이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Art와 Technology의 접목 가능성을 보여주고, 일상 속 친숙한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분야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무소속·교육감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내일부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 앞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하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벌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군민 일상 공감형 공약 수립”

민주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 비료값 50% 지원 등 발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의탁 후보가 무주군 제2의 도약 준비를 목표로 군민 일상 공감형 공약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황 후보는 “무주군 제2의 도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주군민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에 공감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공감하는 게 우선 돼야 군인과 무주군의 발전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 군민 일상 공감형 공약을 수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의탁 후보는 “무주군 내 사용되는 비료값을 50% 지원하고, 농기계 출장수리 지원반을 대폭 늘려 농민의 고과와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며

“상가 주차장 해소를 통해 소비자들 상가 방문 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되돌아가지 않도록 무주읍에 상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황의탁 후보는 전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무주군 초대 농민회장, 전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회장, 전 제11대 전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군민의 지지와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유호상 기자

사회서비스기관에 시설안전점검지원 시작

전북사회서비스원, 이달 내 점검단 순차 파견

전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해 상반기 시설안전점검을 지원할 기관을 선정하고, 5월 내 순차적으로 안전점검단을 파견한다.

대상은 상반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0기관이며, 시설안전점검 30기관 방역 10기관이다.

소방, 전기, 가스 방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통해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소독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분야는 전북소방본부 전기·가스 분야는 한국가스기술협회 전북지부, 한국전기기술협회 전북도회, 한국기술사회 전북지회와 연계해 안전점검단을 구성했으며, 도내 자활기업인 (유)이크리원드를 통해 방역을 지원한다.

서양열 원장은 “시설안전점검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에 자원 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안



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사회서비스원은 시설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상반기 40개소 지원 후, 오는 8월부터 하반기 안전점검기관 30개소를 모집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권익위 “文정부 5년 법·사규 내 부패유발요인 3187건 개선 이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5년 간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해 이중 3187건의 개선을 이뤘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만8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

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 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사규 77.5%)에 달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